

##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스페인에 대한 두 시각\*

— 우나무노와 오르테가의 관점 비교 —

조민현

단독/고려대학교

Cho, Min-Hyun(2008), *Dos perspectivas ante España en crisis: Estudio comparado entre Unamuno y Ortega*,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147-166.

El tema de España como materia principal del pensamiento español tiene larga tradición. En la edad medieval, España se dividió en tres religiones. Al terminar la Reconquista, España busca implantar la unidad nacional por el camino religioso. Este unitarismo religioso es una causa de su decadencia de España, ya que no se adapta al mundo moderno. A partir de entonces, nos damos cuenta de la particular situación de España dividida en dos partes: una España oficial y otra España vital y latente. Y esto se puede interpretar como un motivo de la frecuente temática de lo español a lo largo de los siglos con estos exponentes; Quevedo y Mateo Alemán en el Siglo de Oro, Cadalso, Jovellanos y Larra en los siglos XVIII y XIX. En la línea de esta corriente, se destacan Unamuno y Ortega y Gasset ante la crisis nacional de 1898. Ellos coinciden en diagnosticar el problema español que emana de la España dogmática y cerrada históricamente. Sin embargo, para resolverlo tienen distintos puntos de vista. Unamuno intenta buscar lo esencial del ser español a través de su 'intrahistoria', que está debajo de la historia oficial, para salvar la hispanidad a punto de perderse. En cambio, Ortega y Gasset nos muestra una preocupación práctica para renovar la sociedad española. De ahí emana el sentido de su conocida frase "yo soy yo y mi circunstancia, y si no la salvo a ella no me salvo yo", lo cual significa una activa europeización de España frente a la españolización de Europa propuesta por Unamuno.

En resumidas cuentas, aunque Unamuno y Ortega empezaron con el mismo punto de partida ante España como preocupación, la diferencia entre Unamuno y Ortega depende de dónde pongan su énfasis. Aquél muestra confianza por el pueblo español, en cambio, éste se inclina al racionalismo europeo. Las dos opiniones han contribuido a la modernización de España con distintas perspectivas.

[Unamuno/ Ortega/ problema español/ intrahistoria/ europeización;  
우나무노/ 오르테가/ 스페인의 문제/ 내부의 역사/ 유럽화]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들어가는 말

일찍이 산 이시도로가 “오! 스페인이여! 서양에서 인도 사이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는 분명히 열국의 여왕”(푸엔테스, 1997: 56)이라고 예찬했지만, 스페인은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지난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 로마 지배 이후 스페인에 서고트족이 들어왔고 중세기에는 유대, 아랍, 기독교 문명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으며 1492년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통일 후에도 스페인의 정체성, 말하자면 ‘스페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이후 역사의 흐름만큼 오랜 화두의 대상이 되어왔다. 케베도(Quevedo), 그라시안(Gracián), 마테오 알레만(Mateo Alemán)을 비롯한 17세기 스페인의 작가들은 쇠퇴해가는 제국의 환영을 보았고, 18, 19세기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페이호(Feijoo), 까달소(Cadalso), 호베야노스(Jovellanos), 낭만주의 시대의 라라(Larra)나 도노소 코르테스(Donoso Cortés) 그리고 정치적으로 두 개의 스페인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발레라(Valera), 갈도스(Galdós), 에밀리아 빠르도 바산(Emilia Pardo Bazán), 메넨데스 벨라요(Menéndez Pelayo), 호아킨 코스타(Joaquín Costa) 그리고 가니벳(Ganivet) 등에 의해 스페인의 문제가 진단되었고 스페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스페인이 하나의 소재로서 전면적으로 떠오른 시기는 절박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였다. 스페인은 1898년 미서 전쟁의 패배로 해외에 마지막으로 남은 식민지들을 모두 상실하면서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된다. 이 위기 속에 나타난 98세대와 뒤이은 1900년대 세대(novecentismo)는 스페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른다. 먼저 98세대를 대표하는 우나무노는 다음 시에서 보듯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스페인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아, 천상에 있는 너의 왕국으로부터 추방된 나의 스페인이여, 지상의 대지에 묻혀버린 가없는 나라여!”(Unamuno, 1958: 642). 그 이후 세대를 이끌었던 오르테가 이 가세트 역시 우나무노처럼 일생에 걸쳐 스페인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는데 ‘스페인은 무엇인가?’라는 다음의 외침은 그 한 예이다.

신이시여, 스페인은 무엇인가? 지구의 행보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한계 없는 어제 끝없는 미래에서 길을 잃고, 천체가 깜박이는 거대하고 우주적인 이 냉정함 속에서 볼 때 스페인은 무엇인가? 유럽의 정신적 고향인 이 스페인, 대륙 영혼의 기수로서 이 스페인은 대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말해다오. 분명한 한 마디, 정직한 영혼과 섬세한 정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빛나는 단 한 마디, 스페인의 운명을 비추는 한 마디를 말해다오?(Ortega, 1983a: 360).

우나무노와 오르테가는 한 세대 정도의 차이를 갖지만, 사유의 출발점으로 '스페인의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일생에 걸쳐 서로 교류를 갖게 했는데, 먼저 독일에서 유학중이었던 청년 오르테가는 98세대의 중심축으로서 스페인의 사상계를 이끌었던 우나무노에게 관심을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답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 중 가르시아 블랑코가 소개한 오르테가의 한 편지에는 우나무노에 대한 그의 관심과 스페인에 대한 염려가 함께 묻어있다.

친애하는 우나무노 선생님, 이 순간 저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페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제가 두 번째로 쓴 글인 '문화의 보존'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García Blanco, 1965: 356).

이렇듯 조국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이들의 사유는 '스페인'이라는 공동의 대상에 대한 교감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우나무노가 자신의 사유에 보다 깊이 천착해 들어가고, 오르테가 역시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스페인의 진로에 대해 서로 간에 점차적으로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이렇듯 시대적인 문맥에 유의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스페인의 격동기를 대표하는 우나무노와 오르테가 두 지식인이 스

페인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고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고찰 하겠다. 이들의 사상은 현대 스페인 사상의 두 축을 이루며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sup>1)</sup> 그만큼 그 사상의 폭이 넓고 방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사상체계 전반을 아우르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속에 나타난 스페인에 대한 사유를 고찰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페인에 대한 논의는 단지 소재차원으로서의 범위를 넘어 두 사람의 지적이고 철학적인 전체 사유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오늘날의 스페인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스페인의 문제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38-39 참고)의 표현을 빌면 지중해의 서쪽 끝에 위치한 스페인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이 머물러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이러한 면은 스페인의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특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은 어느 나라보다도 능동적으로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중세의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혔다. 스페인 역사 속의 머무름과 떠남의 상반된 가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집착과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근대의 태동 이후 세계를 인식하는 스페인인들의 사고는 열린 스페인을 지향하는 에라스무스주의 전통과 고립을 표방했던 반에라스무스주의로 나타났는데,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한 스페인 문화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운데, 열림을 잉태했던 또 다른 스페인은 역사 속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잠재되어왔다. 우나무노와 오르테가는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온 스페인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고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스페인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이 기본적으로 내세운 개념은 ‘겉으로 드러난 스페인’과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스

---

1) 김춘진 교수의 “오르테가 사상과 예술 비평의 이념적 배경과 정치성”은 우나무노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오르테가의 미학이 지향하는 정치적 함의를 탐색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이다 (김춘진, 1999: 163-194 참고).

페인의 개념이다. 우나무노는 이를 ‘역사적인 것’(lo histórico)과 ‘내부의 역사적인 것’(lo intrahistórico)으로 구분했고, 오르테가는 ‘공식적인 스페인’(España oficial)과 ‘생명적인 스페인’(España vital)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페인이 함께 살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관습을 집요하게 고집하려는 ‘공식적인 스페인’과 아마 강력하지는 않지만 진지하고 정직하며 생동감 있게 계속해서 열망을 품은 채 움트고 있는 또 다른 스페인 즉 ‘생명적인 스페인’이 그것이다. 이 스페인은 공식적인 스페인에 의해 제지당한 채 역사 속에 온전히 받을 들여놓지 못하였다. [...] 어떤 문제에 대해 이 두 스페인의 입장은 완전히 상이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다(Ortega, 1983a: 273).

이렇게 두 개의 스페인으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완전히 표면화된 스페인의 몰락이 겉으로 드러난 스페인의 모습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서 먼저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은 우나무노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스페인이 뒤쳐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며 그 원인으로 스페인의 고립주의와 배타적인 성격을 들었다. 이러한 성격이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도그마화한 종교재판소를 바탕으로 닫힌 사회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종교재판은 혈통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려는 고립의 도구였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획일성에 빠지면서 여타 유럽국가처럼 다양한 학파와 조류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는 오래된 나무덩굴과 마르고 헐벗은 대지만이 남게 되었다.”(Unamuno, 1991: 162). 우나무노는 또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가? ¿Está todo moribundo?」라는 글에서도 배타적인 순혈정책을 바탕으로 스페인 사회에 항구적으로 퍼져있는 종교재판의 여파가 사회를 경직시키고 형식주의로 흐르게 하여 결국은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의 삶에 생생한 물줄기가 없다. 우리의 삶에 샘물은 없고 고인 물만이 채워져 있다. 그 표면을 가르는 돌팔매는 기껏해야 바다에 있는 진흙을 휘저어 연못을 혼탁하게 할 뿐이다. 이러한 집단 최면 속에서 무서운 정신적인 황무지가 펼쳐진다. 생동감도 자발성도 젊음도 없다(Unamuno, 1998a: 292).

이렇듯 우나무노는 스페인이 고립주의로 말미암아 여타 유럽 국가와는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뒤쳐진 채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본다. 한편 그는 이러한 현상 분석과 더불어 이 현상에 내재되어있는 스페인인들의 정신구조에도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한 예로 ‘질투’(envidia)를 든다. 질투는 타인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런 요소가 스페인이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해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sup>2)</sup>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아벨 산체스 Abel Sánchez』는 질투가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그러한 면은 결과적으로 스페인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질투!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재앙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스페인 정신을 안으로부터 굼게 만든다. 질투는 상대를 물어뜯기만 할 뿐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게 하는 나약한 것이라고 말한 께베도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 질투는 다른 무엇보다도 카인의 피다. 질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쉽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호전적으로 변하게 하는 카인의 피인 것이다(Doblado, 1988: 14 재인용).

여기서 우나무노가 말하는 질투는 대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동반하지 않는 지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이러한 면이 스페인에 수많은 불행을 야기했던 종교재판 등이 변성한 이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Doblado, 1988: 14-15 참고). 말하자면 우나무노가 언급한 카인이 갖고 있

---

2)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 「질투심 많은 늑은이 El celoso extremeño」는 극도의 질투에 의해 파멸을 맞는 한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때 질투심 많은 노인의 모습은 고립을 통해 몰락을 자초했던 당대 스페인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는 ‘질투’의 문제는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상대의 훌륭한 점을 받아들여 발전을 기한다기보다는 자의식적인 자기 고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어온 스페인 민족의 배타주의와 고립주의의 일면이 이러한 점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오르테가 역시 타자와의 소통이 단절된 이러한 배타성과 고립성이 스페인의 심각한 문제였음을 지적한다(Abellán, 1996: 593 참고). 그런데, 스페인의 문제에 대한 우나무노의 진단이 ‘질투’라는 용어에서 보듯 다소 감정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오르테가는 여기에 사회현상을 진단하는 과학적인 사유를 도입해 보다 정교한 개념을 만들어 낸다. 그가 우나무노가 말하는 ‘질투’, ‘시기’의 요소를 구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대중’의 속성 속에 떠올린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특히 오르테가는 『척추 없는 스페인 *España invertebrada*』에서 스페인의 몰락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는데, 그 주원인으로 스페인에 시대의 동력을 제공할 선구자적인 소수가 부재했으며 역사 전개를 통해 계속되어온 대중의 지배를 들고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꺼리고 현상에만 안주하려는 대중이 스페인 역사의 주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스페인인들은 대중의 제국에 몸을 내맡긴 채 살고 있다. [...] 어디를 가든지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이 광적으로 소수의 선구적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 스페인은 이미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보다 더 심오하고 실제적인 삶의 구석구석에서 척추 없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Ortega, 1983a: 95-96).

앞서 있는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평균적인 생각만을 강요하는 대중의 속성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이지만, 오르테가는 이러한 대중의 성격이 스페인인들의 의식 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러한 면이 국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이는 통치의 원리로 종교의 논리를 강요하여 스페인이 외부 세계와 고립된 16세기 중엽 이후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그 고립의 결과로 스페인에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미소네이스모(misonéismo)가 사회 저변에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나 뉴턴 등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모든 본보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구성하는 동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경향 즉 호감과 반감이 있다. 단지 모범적이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반감을 갖고 정치, 도덕, 취미에 이르기까지 통속적인 자신들의 사고만을 고집하는 대중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스스로의 타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기에 스페인은 대중에 의한 지배라는 이러한 착란 증세를 가진 통탄할 만한 예이다(Ortega, 1983a: 125).

대중은 평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용인하지 않는다. 스페인 쇠락의 원인으로 『척추 없는 스페인』에서 표명한 이러한 생각은 스페인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온 대중의 지배가 새로운 주변 환경에 스페인이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중의 맹목적인 반역, 선구자적인 사람들에 대한 증오, 이런 사람들의 부족, 여기에 스페인 민족이 겪고 있는 대 재앙의 진정한 원인이 있다”(Abellán, 1996: 594 참고)는 것이다.

『척추 없는 스페인』에서 제기된 대중에 대한 사유는 이후 『대중의 반역 *La rebelión de las masas*』에서 서구 사회에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한 대중의 존재를 설명하며 보다 정교하게 대중의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며 이론화된다. 그러나 아베얀이 말하듯, 여타 유럽 국가와 스페인의 경우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럽에서의 대중의 출몰과 지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만, 스페인에서는 비이상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와 항구적인 성격을 띠는 병리적 현상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Abellán, 1996: 594 참고).

스페인의 고립주의와 배타성 그리고 그 기질적 성격으로 우나무노가 말하는 ‘질투’와 오르테가의 ‘대중론’ 등은 스페인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지 못하고 몰락한 일면을 드러내 준다. 이렇듯, 이들의 현실 진단은 그 분석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문



제점에 대한 해법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우나무노는 당면한 즉각적인 위기 앞에서 스페인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유했다. 그리하여 실천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내부의 역사’이다.

### Ⅲ. ‘내부의 역사’로서 스페인과 우나무노

우나무노는 『안개 Niebla』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인물로 나타나 작품 속 주인공과 다투던 중 지나치게 스페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주인공 아우구스또의 항변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나는 스페인 사람이다.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으며 육체와 정신, 언어와 직업까지도 스페인적이다. 어느 무엇보다도 스페인적이다. 스페인주의는 나의 종교며 내가 믿기를 원하는 하늘은 천상의 영원한 스페인이다. 나의 신은 스페인의 신, 우리의 주인이신 돈 키호테 신이다. 스페인어로 사유하는 신은 스페인어로 말했다. ‘빛이 있을지 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스페인어였다……(우나무노, 2005: 289).

작품 속 우나무노의 목소리처럼, 조국 스페인에 대한 우나무노의 열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존을 보증하는 하나의 신앙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베얀은 “스페인적인 것은 우나무노의 자전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그 둘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우나무노는 어떤 면에서 스페인과 동일시되어 그의 사유 체계 속에 계속해서 내재되었다”(Abellán, 1996: 527)고 말한다. 말하자면, 대상으로서 스페인이 자신의 실존과 더불어 그의 사유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안개』가 드러내는 의미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 아우구스또는 자살을 결심하고 작가 우나무노를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우나무노는 그가 작가의 손에서 창조된 허구적 인물임으

로 자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에 주인공은 우나무노 역시 결국은 죽게 되고 자신처럼 허구의 실체로 남게 될 뿐이라고 항변한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네,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와 같은 허구의 실체들! 나와 똑같이! 모두가,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우나무노, 2005: 291-292). 그런데, 작품 속 주인공은 이러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당신은 여러 번에 걸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미 너무 실제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세르반테스보다도 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우나무노, 2005: 283)라고 말하며, 작가와 등장인물 중 누가 더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을 지를 암시하려고 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작가 우나무노와 작품 속 주인공의 실존을 문제 삼는다. “침대에서 꿈쩍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꿈을 꿀 때 무엇이 더 존재하는 것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의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꿈입니까?”(우나무노, 2005: 283)라고 말하며, 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허구적 인물의 존재적 우위를 차츰 역설하기 시작한다. 우나무노는 결국 『안개』의 부록으로 나온 「아우구스또 빠레스와의 인터뷰 *Una entrevista con Augusto Pérez*」에서 “세르반테스의 붓을 움직인 사람은 돈키호테”(Unamuno, 1983: 186)라고 고백하며 이를 인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가 우나무노나 세르반테스는 소멸하고 만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창조물들인 돈키호테나 아우구스또는 계속해서 살아남아 그들의 실존을 보증하는 더 본원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나무노가 왜 표면에 드러난 ‘역사적인 것’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역사적인 것’의 개념을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서전쟁의 패배로 국가의 소멸까지도 염려하게 된 우나무노는 국가는 비록 사라질지라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로 한 국가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부의 역사’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표면에 드러난 역사보다 더 본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우나무노는 돈키호테가 불멸하는 방식에서 스페인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허구로써의 존재 방식이다. 우나무노가 실제적인 역사보다 더 항구적인 것으로 ‘내부의 역사(intrahistoria)’의 개념을 떠올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결국 우나무노의 불멸의 개념은 일정 정도 개인의 실존적 경험과 시대의 위기 속에서 잉태된 소산물인 것이다’(조민현, 2006: 276-277).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있었던 세르반테스나 우나무노는 그 존재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갔지만, 그들이 남긴 돈키호테나 아우구스또는 계속해서 살아남아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우나무노는 ‘겉으로 드러난 역사’ 속에 위치한 스페인은 역사 속에서 잘못 길을 들어 쇠퇴하고 소멸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스페인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겉으로 드러난 역사’, ‘내부의 역사’ 그리고 ‘영원성을 가진 스페인’으로 스페인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내부의 역사’를 구비한 스페인의 영원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내부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소리와 태양 빛이 반사되는 거품을 가진 역사의 물결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고요한 표층만이 아니고 바다 속 깊은 곳으로부터 거대하게 이어지는 바다 위를 흐르고 있다. 그 심연의 바다에는 햇빛조차 도달하지 않는다. 날마다 신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 ‘역사적인 현재의 순간’의 모든 이야기는 바다의 표면, 다시 말해 책과 공증문서로 얼어붙어 결정화되는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딱딱한 층을 형성하며 결정화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잘 것 없는 표면은 거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역사적인 삶보다 우월할 것이 아니다. [...] 나는 장엄한 역사의 침묵 속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본다. 침묵 속에 남겨졌던 역사 속에서 어떤 꿈틀거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심연의 바닥 속처럼 침묵 속에 이루어졌던 내부의 역사적인 삶이 진보의 본질이며 진정하고 영원한 전통이다. 그것은 책, 서류몽치, 기념물 등에 묻혀 있는 과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Unamuno, 1991: 49-50).

결국 우나무노는 당면한 조국의 위기와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겉으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일반 민중의 정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방식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그러한 방식이 사회를 진단하고 해부하여 처방을 제시하는 과학적 방식보다 더 유효하다고 보며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생리학자들보다 몸 스스로가 상처를 더 잘 아물게 한다.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고 민중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사회학자들보다 사회의 몸체인 민중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Unamuno, 1998b: 296).

이렇듯, 우나무노는 스페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스페인의 언어와 관습, 문학, 제도 등 역사의 심층에 들어있는 본원적인 스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럴 때 현재의 왜곡된 구조가 바로잡히고 스페인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오르테가는 우나무노가 불분명한 ‘내부의 역사’라는 개념을 들고 전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지난 3세기 반 동안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진 채 방황했는데, 계속해서 전통을 들먹이며 이어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노릇 아닌가? 전통! 스페인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스페인의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것 말고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을 고집할 수 없다”(Ortega, 1998b: 449).

이렇게 오르테가는 우나무노식의 해결책을 반박하면서 과거 속에 잠재된 무언가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시간 속에서 스페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그의 철학적 사유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체계화된다.

#### IV. ‘가능성으로서 스페인’과 오르테가

스페인이 1898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 오르테가는 청년이었다. 당시 우나무노는 직접적으로 스페인에 대해 진단을 하고 대처해야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르테가는 배움의 시기였다. 하지만 스페인에 대한 그의 염려와 고뇌는 청년기를 지배하였기에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청년기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었다. 내 청춘은 스페인 역사의 길모퉁이에서 금작화처럼 완전히 타버렸다. 오늘 나는 궁지와 함께 진실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나의 10년 동안의 그 젊은 날은 단지 스페인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가득한 신비한 광이었다 (Ortega, 1983a: 419).

학창 시절에 겪었던 오르테가의 스페인에 대한 고뇌는 이후 반성적 거리를 통해 보다 냉철한 성찰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우나무노가 겉으로 드러난 역사 속에서도 곳곳이 지켜온 내부의 역사 속에서 스페인을 구원할 길을 찾았다면, 오르테가는 스페인을 좀 더 변화시켜 현상적으로 드러난 위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자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말하자면 “(오르테가의) 글은 고착된 정치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고, 스페인의 실제적인 정치에 간여할 목적을 띠었다”(Abellán, 1996: 593)는 언급처럼 그는 스페인의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하되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오르테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모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주문한다. “나는 나와 나의 환경으로 되어 있다. 나의 환경을 구하지 못하면, 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Ortega, 1983a: 322)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그의 조국인 스페인의 운명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스페인은 스페인과 스페인을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되기에 그 환경에 부단히 개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스페인의 환경을 구할 때, 현재의 스페인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환경은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해야할 전망을 동반한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전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변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르테가의 이 이론은 숲의 예에서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숲은 그 어느 쪽에서 보든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의 가능성이다. [...] 숲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가능성의 모든 총합이다. 각 행위들은 실현되자마자 그만 그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들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숲은 단지 그 밖의 것이 우리들의 눈에서 감춰지고 멀어지게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Ortega, 1983a: 331).

결국 오르테가의 이 전망주의는 위기 속에 놓인 스페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한 생물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성장이 좌우되듯이, 세계라는 환경 속에 부단히 작용하여 구해지는 유기체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존재,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을 상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우리 삶의 가능성을 적어놓은 목록이다. 따라서 세계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테두리이다. 세계는 존재의 가능성과 삶의 잠재력을 나타낸다. 이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구체적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능성들 중에서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계는 우리에게 그토록 거대해 보이고,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이토록 왜소해 보이는 것이다. 세계 혹은 우리 삶의 가능성은 우리의 운명이나 현실의 삶보다 항상 거대하다(오르테가, 2005: 57).

스페인이 현재에는 왜소해 보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무한한 가능성 속에 열려져 있게 된다. 순간순간 놓인 삶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미래를 지향하자는 오르테가의 이러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스페인이 이제까지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것을 제안하게 된다. 유럽은 스페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환경이었던 것이다.

## V. 스페인의 유럽화, 유럽의 스페인화

스페인과 유럽의 관계는 ‘내부의 역사’로 스페인의 구원 가능성을 상정했

던 우나무노와 이성을 통해 삶에 부단히 개입하여 새로운 스페인을 건설할 것을 염원했던 오르테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는 대목이다. 오르테가는 단호하게 유럽의 관점 속에 스페인을 위치시킬 것을 역설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스페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럽으로 눈을 돌릴 때) 이베리아 반도의 보잘 것 없는 현실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소진했던 우리의 현실은 그제야 인간 문명이 추구하는 깊은 의미를 획득해갈 것이다. 지난 3세기동안 우리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유럽’이라는 말이 단번에 환희의 노래로 분출할 것이다. [...] 유럽으로부터의 시선만이 그러한 스페인을 가능하게 만든다(Ortega, 1983a: 138).

하지만, 스페인과 유럽의 관계는 오랜 역사의 질곡을 거쳐 왔기에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16세기 중엽 스페인이 제국 통합의 논리로 가톨릭을 통치 원리로 채택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타 유럽 국가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애써 비껴가면서 고립의 길을 택해왔기에 전면적인 유럽화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기에 스페인 제국의 몰락 이후 스페인을 여타 유럽의 흐름에 어떻게 동참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스페인의 유럽화(europeización)라는 이름으로 당시 지식인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였다. 우나무노는 이 문제에 대해 다소 갈등을 겪었다. 스페인이 유럽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제도적인 문제에 기원한 것일 뿐이므로 스페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일정정도 유럽화의 물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Unamuno, 1991: 165 참고). 하지만 오르테가 등 1900년대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인 유럽화를 주장하자,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며, 스페인의 정수를 잃어버리는 무분별한 유럽 지향성을 반대한다.

나는 정말로 진실한 스페인의 유럽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의 깊은 확신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럽 정신의 어떤 부분을 소화해야 할 때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 그들의 것 대신에 진정으로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유럽을 스페인화 하려고 하지 않을 때까지(Abellán, 1996: 528 재인용).

우나무노는 스페인의 유럽화에 앞서 오히려 유럽의 스페인화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그는 유럽화를 다룰 때에도 스페인 민족이 다른 나라와 구분되게 역사 속에서 지켜온 스페인적인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내부의 역사적인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우나무노의 여러 저작에서 나오는데, 그 중 『생의 비극적 의미』에서 그는 물고기가 날기를 위해서 자신의 지느러미가 날개로 변해서 날아다닌다면, 물고기로서는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이 부유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로서는 나의 생명의 단일성과 존속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우나무노, 1988: 19).

이러한 입장은 크라우제주의 이후로 계속 이어져온 ‘국가재건운동’(regeneración)에 대한 이들의 서로 상이한 시각으로 이어진다. 오르테가는 말하길,

‘국가재건운동’이라는 말은 스페인인들의 의식 속에 홀로 들어오지 않았다. 국가재건운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유럽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국가재건운동은 유럽화의 문제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의 감정, 고뇌, 부끄러움, 열망이 느껴지자마자 유럽의 정신이 시작되었다. 국가재건운동은 열망이다. 유럽화는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수단이다. 스페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순간 유럽은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Ortega, 1998a: 442).

반면에 우나무노는 「국가재건운동의 거짓 La falsedad de la regeneración」에서 이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스페인의 시골마을 또보소에서 태어나서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골 농부는 뉴욕의 노동자보다 덜 행복한가? 진보를 통해 얻어지는 빵부스러기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반복해서 들려오는 영원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우리를 사업, 일, 과학에 취하도록 내몬다. 씩씩하고 솔직히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민족은 태양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Unamuno, 1998b: 296).

오르테가는 우나무노의 이러한 태도가 삶과 세계에 대한 신비주의라고 보고 이를 비판한다. 그는 적어도 신학은 신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신비주의는 어떤 지적인 작용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말한다(Ortega, 1983b: 455 참고). 신비적인 지식은 상호 소통하는 것이 아닌 자기 충족적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세계와의 소통 가능성을 추구하는 오르테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유럽화를 둘러싼 두 사람의 논쟁은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체계로 귀결된다. 우나무노가 끝내 스페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자리잡은 정신적 신비주의를 고수했다면, 오르테가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벗어던지고 유럽의 합리주의 정신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던 것이다.<sup>3)</sup>

## VI. 나가는 말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에서 비롯된 정신적 각성은 우나무노나 그 이후 세대인 오르테가가 조국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에 대해 유사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서로 매우 상이한 시각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몰락을 직접적

3) 이러한 면에서 우나무노가 데카르트와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산 후안 델 라 크루스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다고 하자 오르테가는 스페인은 데카르트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스페인 유럽화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데카르트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Ortega, 1983a: 129 참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성향 즉 유럽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도 스페인적인 것의 정수를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본 우나무노의 입장과 유럽의 합리적 이성주의를 옹호하는 오르테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으로 겪은 우나무노 세대는 국가의 소멸 자체를 염려하고 이를 관념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하였다면, 오르테가는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 쇠망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적 시각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는 또한 우나무노가 스페인 내에서 공부하고 사유한 반면, 오르테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바깥에서의 사유를 길렀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 조국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에도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우나무노가 스페인적인 것의 정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스페인의 순수한 전통 속에 매달렸다면 오르테가는 현재의 스페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스페인적 사유의 그 근본에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위기에 처한 현재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유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분명하게 나뉜다. 오르테가가 스페인의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스페인의 유럽화’를 주장하였다면, 우나무노는 오히려 ‘유럽의 스페인화’를 단호하게 외쳤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이후 20세기를 살아온 스페인에 의미 있는 두 가지 시각을 제공하며 자리 잡았다. 먼저 스페인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이성과 진보를 바탕으로 한 오르테가의 입장은 이후 프랑코의 쇄국정책 등으로도 전을 받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대 스페인의 큰 물줄기로 자리 잡아 유럽 연합 가입 등에 이론적 단초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우리는 유럽인이다.’(Somos europeos.)라는 말은 오르테가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스페인화’를 부르짖던 우나무노의 외침이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를 거쳐 서구 세계는 이성을 통한 계속된 진보를 꿈꾸어왔다. 오르테가의 관점도 넓게 보면 스페인을 이 대열에 합류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조류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놓은 기존 세계의 우열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습도 이러한 가치판단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하자면 공통의 규범적 가치에 따른 통일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나무노의 주장처럼 지방마다의 독

특한 특성이 존중되며, 그 자체의 모습이 유럽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기 전 서로 다른 전망 속에서 스페인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우나무노와 오르테가의 입장이 교차되어 융합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 참고문헌

- 김춘진. 1999. 「오르테가 사상과 예술 비평의 이념적 배경과 정치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0: 163-194.
- 오르테가 이 가세트. 2005. 『대중의 반역』. 황보영조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 우나무노. 1988. 『생의 비극적 의미』. 장선영 옮김. 서울: 삼성이테아.
- \_\_\_\_\_. 2005. 『안개』. 조민현 옮김. 서울: 민음사.
- 조민현. 2006. 「우나무노와 보르헤스의 인식론적 유사성과 차이」. 《세계문학비교연구》, 15: 261-281.
- 카를로스 푸엔테스. 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옮김. 서울: 까치.
- Abellán, José Luis. 1996.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Calpe.
- Doblado, Gloria. 1988. *España en tres novelas de Juan Goytisolo*. Madrid: Playor.
- García Blanco, Manuel. 1965. *En torno a Unamuno*. Madrid: Taurus.
- Ortega y Gasset, José. 1983a. *Obras completas I*. Madrid: Alianza.
- \_\_\_\_\_. 1983b. *Obras completas V*. Madrid: Alianza.
- \_\_\_\_\_. 1998a. “Europa como solución.” *España como preocupación*. Madrid: Alianza. 441-442.
- \_\_\_\_\_. 1998b. “La crítica como patriotismo.” *España como preocupación*. Madrid: Alianza. 448-450.
- Unamuno, Miguel de. 1958. *Obras completas XV*. Madrid: Afrodísio Aguado.
- \_\_\_\_\_. 1983. “Apéndice: Una entrevista con Augusto Pérez.” *Niebla*. Madrid: Taurus.
- \_\_\_\_\_. 1991. *En torno al casticismo*. Madrid: Espasa Calpe.
- \_\_\_\_\_. 1998a. “¿Está todo moribundo?.” *España como preocupación*. Madrid: Alianza. 291-295.
- \_\_\_\_\_. 1998b. “La falsedad de la regeneración.” *España como preocupación*. Madrid: Alianza. 295-297.

성명: 조민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minhyunc@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3일